

Business Focus

2026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본 제약·바이오 주요 트렌드

(44th J.P.Morgan Healthcare Conference)

January 2026

—

삼성KPMG 경제연구원



Contents

44 th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요	2
2026년 제약·바이오 주요 트렌드	3
- ① 인수합병 및 파트너십을 통한 차세대 성장 포트폴리오 구축	4
- ② 비만 및 대사질환 치료제 강세 지속	7
- ③ 인공지능(AI) 실질적 도입으로 신약개발 가속화	10
- ④ K-바이오, 생물보안법 효과 기대 및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13
2026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간 중 발표된 주요 투자	16

44th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요

2026년 1월 12일~15일(현지 기준)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제44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글로벌 최대 바이오 투자 심포지엄으로 9,000명 이상의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업계 종사자 및 투자자가 참석해 신약개발 및 산업·투자 트렌드를 조망하는 발표와 다수의 비즈니스 파트너링 미팅 진행

제44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항목	내용
주최	• J.P.Morgan
목적	• 투자 심포지엄
장소	• 미국 샌프란시스코 (San Francisco)
기간	• 2026년 1월 12일~15일 (현지 시간 기준)
참가 규모	• 주최측이 발표 및 파트너링 참가 기업을 사전 선정·초대 • 1,500개 이상의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기업 • 9,000명 이상의 업계 종사자 및 투자자
컨퍼런스 구성	• 기업 발표 - 메인 트랙(Main Track), 아시아·태평양 트랙(APAC Track) 등 • 비즈니스 파트너링 미팅 등 - 약 1만 2,000건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Why J.P.Morgan Healthcare Conference?

글로벌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컨퍼런스

- 1983년부터 매년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컨퍼런스로 주최측이 글로벌 주요 제약사와 바이오텍(Biotech), 헬스케어 등 유망한 기업과 관련 투자자를 사전에 선정하여 초청

신약개발 및 투자 트렌드 확인

- 컨퍼런스는 참가 기업의 연간 마일스톤 및 전략,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임상시험 결과 등을 발표하는 트랙과 최신 기술 및 시장 동향, 규제 변화 등을 논의하는 파트너링 미팅 등으로 구성되어 제약·바이오 산업 트렌드 조망

글로벌 투자자 및 파트너 협력 기회 모색

- 참가 기업은 발표 및 네트워킹을 통해 기업 간 파트너십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 기술 거래 등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 가능
- 글로벌 빅파마는 컨퍼런스를 통해 대규모 인수합병(M&A) 발표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26년 제약·바이오 주요 트렌드

2026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 본 제약·바이오 업계 주요 트렌드는 ‘글로벌 빅파마의 인수합병 및 파트너십을 통한 파이프라인 재편’, ‘제형 다변화에 따른 비만 및 대사질환 치료제 강세’, ‘제약·바이오 산업 핵심 인프라로 부상한 인공지능(AI)’, ‘미국 생물보안법 최종 승인에 따른 K-바이오 기업 부상 기대’로 도출

2026 주요 키워드: 인수합병 및 파트너십, 비만치료제, AI 신약, 美 생물보안법

01 인수합병 및 파트너십을 통한 차세대 성장 포트폴리오 구축

- 종양학을 비롯하여 면역, 비만 및 대사질환 파이프라인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다소 위축되었던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의 투자 환경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
- 블록버스터 의약품 특허 만료 구간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빅파마 중심으로 대규모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실질적 상용화 단계의 자산 또는 수익모델 실현 가능성이 돋보이는 파이프라인에 투자가 집중되는 추세

02 비만 및 대사질환 치료제 강세 지속

- 2024년 글로벌 의약품 매출액 기준, GLP-1¹⁾ 기반의 대사질환 치료제 (오젠폍, 마운자로)가 상위 10위권 내 진입
- 노보 노디스크의 경구용 비만치료제 (위고비 필)가 FDA²⁾ 승인을 받으며 기존 주사제 중심에서 경구제 전환 등 2026년 시장 경쟁 구도 변화 예상
- 투여 주기 또는 대사질환 관련 동반 질환 개선 등 차별화 전략으로 비만 및 대사질환 시장 확대가 본격화될 전망

03 인공지능(AI) 실질적 도입으로 신약개발 가속화

- AI는 신약개발을 넘어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분야 내 핵심 인프라로 부상
- 엔비디아(NVIDIA)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 자사의 AI 기술을 생명과학 분야에 도입하고 자체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파트너십 강조
- AI 도입을 넘어 생태계 전반에서 실질적 성과가 중요함에 따라 제약·바이오 기업은 AI 및 데이터 통합·분석 플랫폼 기업과 파트너십 기회 모색

04 K-바이오, 생물보안법 효과 기대 및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 미국의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시행이 가시화되면서 미국 내 CDMO³⁾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한국 바이오 기업의 중장기적 수혜 기대
-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2025년에 이어 올해도 메인 트랙에 초청받아 美 공장 중심의 CDMO 역량 강화 및 신약 개발 가속화 전략 발표
- 알테오젠, 디앤디파마텍 등 한국 신약개발 기업은 자사 플랫폼 중심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전략 발표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1): Glucagon-like peptide 1(위장에서 분비되는 Incretin 호르몬 중 하나로, 경구로 섭취된 당이나 지방에 반응하여 소장의 L세포에서 분비되는 펩타이드 호르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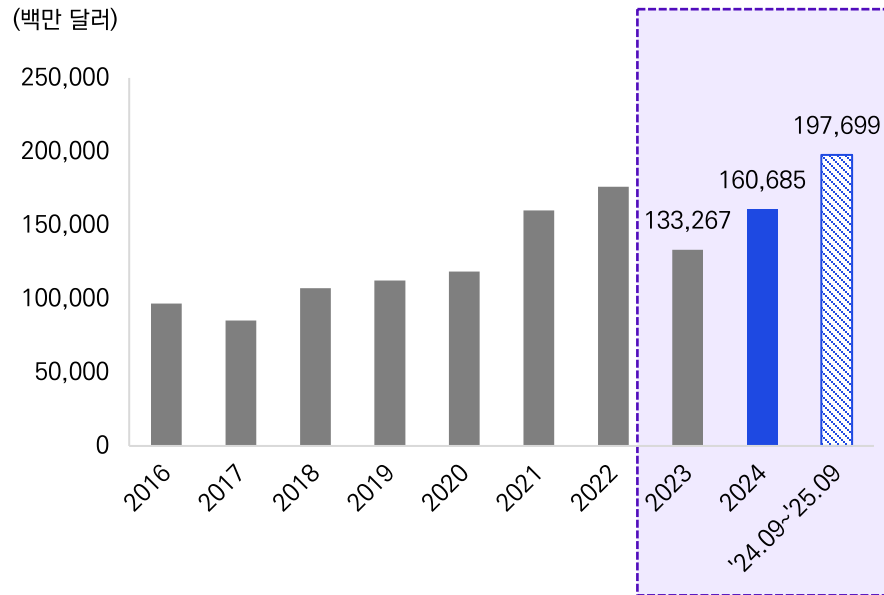
Note 2):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Note 3):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① 인수합병 및 파트너십을 통한 차세대 성장 포트폴리오 구축 (1/3)

글로벌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의 잉여현금흐름 추이와 2025년 인수합병(M&A) 거래를 바탕으로 볼 때, 고금리 장기화를 포함하여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다소 위축되었던 투자 환경은 빅파마 중심의 대규모 거래가 등장하면서 회복세 기대. 특히 종양학 외에도 면역, 비만 및 대사질환 등의 파이프라인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

글로벌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¹⁾ 잉여현금흐름(FCFF) 추이²⁾



Source: Pitchbook,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1): 2024년 글로벌 빅파마 매출액 Top 12(존슨앤드존슨, MSD, 화이자, 애브비, 사노피, 로슈, 아스트라제네카, 노바티스, BMS, GSK, 일라이 릴리, 노보 노디스크)

Note 2): Pitchbook 기준 각 사 연도별 FCFF 합계 및 2025년 9월 기준 최근 12개월의 FCFF 합계 (최우측) 제공

2025년 주요 인수합병(M&A) 거래 내역¹⁾

총 거래금액 약 1,803억 달러		✓ 글로벌 빅파마 1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M&A 3건 체결 ✓ 종양, 면역, 비만 및 대사 질환 파이프라인 거래 집중		
거래 일자 ²⁾	피인수 기업	인수 기업	거래 규모 (억 달러)	치료 분야
12월	할다 테라퓨틱스 (Halda Therapeutics)	존슨앤드존슨 (Johnson & Johnson)	30.5	종양
11월	멧세라 (Metsera)	화이자 (Pfizer)	100.0	비만 및 대사
10월	베로나 파마 (Verona Pharma)	머크 (MSD)	100.5	호흡기
	아케로 테라퓨틱스 (Aker Therapeutics)	노보 노디스크 (Novo Nordisk)	52.0	비만 및 대사
8월	캡스탄 테라퓨틱스 (Capstan Therapeutics)	애브비 (Abbvie)	21.0	면역
7월	블루프린트 메디슨 (Blueprint Medicines)	사노피 (Sanofi)	30.0	희귀 및 면역
4월	안토스 테라퓨틱스 (Anthos Therapeutics)	노바티스 (Novartis)	31.0	심혈관
	인트라셀룰러 테라퓨틱스 (Intracellular Therapies)	존슨앤드존슨 (Johnson & Johnson)	139.2	중추신경계
3월	스콜피온 테라퓨틱스 (Scorpion Therapeutics)	일라이 릴리 (Eli Lilly)	25.0	종양

Source: Pitchbook,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1): Pitchbook 기준, 거래 발표 혹은 완료 내역

Note 2): 거래 완료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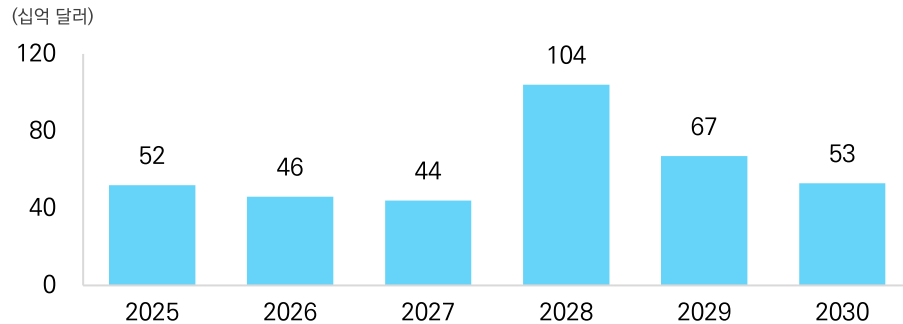
① 인수합병 및 파트너십을 통한 차세대 성장 포트폴리오 구축 (2/3)

2026년 이후 대다수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며, 이에 2030년까지 약 3,660억 달러 규모의 매출 감소 예상. 본격적으로 특허 절벽(Patent Cliff) 구간에 진입하는 빅파마를 중심으로 매출 공백에 대응하고자 대규모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 특허 절벽 구간 진입

- 2025년을 시작으로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은 특허 만료 구간에 본격적으로 진입했고, 2030년까지 제네릭(Generic Medicine) 또는 바이오시밀러(Biosimilar)와의 경쟁에 노출된 처방의약품 매출 규모는 약 3,660억 달러
- 2028년의 경우 약 1,040억 달러 규모의 처방의약품이 특허 보호 상실될 전망으로 단일 연도 기준 최대 수준 예상

[특허 만료에 따른 글로벌 처방의약품 매출 감소 규모 (2025~2030년)]



Source: Statista, 삼성KPMG 경제연구원

2028~2029년 주요 의약품 특허 만료 현황

- ✓ 글로벌 빅파마는 특허 만료에 따른 중장기적 리스크에 처한 상황
- ✓ 특히 머크(MSD)는 최대 매출 품목인 키트루다(Keytruda)의 특허가 2028년에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매출 공백 확대 전망

기업명	제품명	분류	특허 만료 예상 시기 ¹⁾	2024년 매출액 비중 (%)
머크 (MSD)	키트루다 (Keytruda)	면역항암제	2028	46
	가다실 (Gardasil/Gardasil9)	HPV ²⁾ 백신	2028	13
BMS (Bristol Myers Squibb)	엘리퀴스 (Eliquis)	항응고제	2026~2028	28
	옵디보 (Opdivo)	면역항암제	2027~2028	19
노보 노디스크 (Novo Nordisk)	오젠펙 (Ozempic)	당뇨병 치료제	2026~2032	40
일라이 릴리 (Eli Lilly)	트룰리티 (Trulicity)	당뇨병 치료제	2027	21
존슨앤드존슨 (Johnson & Johnson)	다잘렉스 (Darzalex)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2029~2031	13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1): 2025년 1월 16일 언론보도 혹은 각 사 제공 자료 기준(국가별 차이 존재)

Note 2): 인유두종바이러스

① 인수합병 및 파트너십을 통한 차세대 성장 포트폴리오 구축 (3/3)

글로벌 의약품 매출액 1위 키트루다(Keytruda)의 특허 만료를 앞둔 MSD는 제형 다변화 및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리스크 제거(Derisking)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BMS는 신약 상업화를 위해 내부 플랫폼과 외부 기술의 전략적 융합 강조. 점차 실질적 상용화 단계의 자산 또는 수익모델 실현 가능성이 돋보이는 파이프라인에 투자를 집중하는 추세

MSD, 피하주사제 및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으로 리스크 완화

- 키트루다(Keytruda) 피하주사(SC) 제형인 '키트루다 큐렉스(Keytruda QLEX)' 전략 공개 (2026 JPMHC)
 - Keytruda QLEX는 한국 알테오젠(Alteogen)의 ALT-B4 기술¹⁾이 적용된 약물로 2025년 9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1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승인을 받으며 주요 시장 출시 완료
 - SC제형은 투여 편의성이 높아 환자·의료진 수요를 확장함으로써 기존 시장 기반 확대 가능. 특히 단독 및 병용 요법에서도 효과적이며, MSD의 향후 18~24개월 내 미국 시장 SC제형 전환율 40% 가능성 제시
- 80여 건 후기 단계(임상 3상) 파이프라인 기반의 신규 매출 구조 확보
 - 자체 개발뿐 아니라 바이오 벤처·기술 파트너십을 전략적으로 병행하여 TROP2 항체-약물 접합체(ADC)²⁾ Sac-TMT(비소세포폐암 등), 경구용 PCSK9 억제제(고지혈증), MK-8591(HIV-1 감염 치료 및 예방)의 다양한 파이프라인 보유

Source: MSD 홈페이지,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기존의 정맥주사(IV) 의약품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바꾸는 플랫폼 기술

Note 2): TROP2 단백질을 표적으로 삼는 차세대 항암 치료제(Antibody Drug Conjugate, 암세포 표면의 특정 표적 항원에 결합하는 항체(Antibody)와 세포 사멸 기능을 갖는 약물(Drug)을 결합(Conjugate)시킨 표적 항암제))

BMS, 핵심 치료 영역과 기전에 대한 선별적 기술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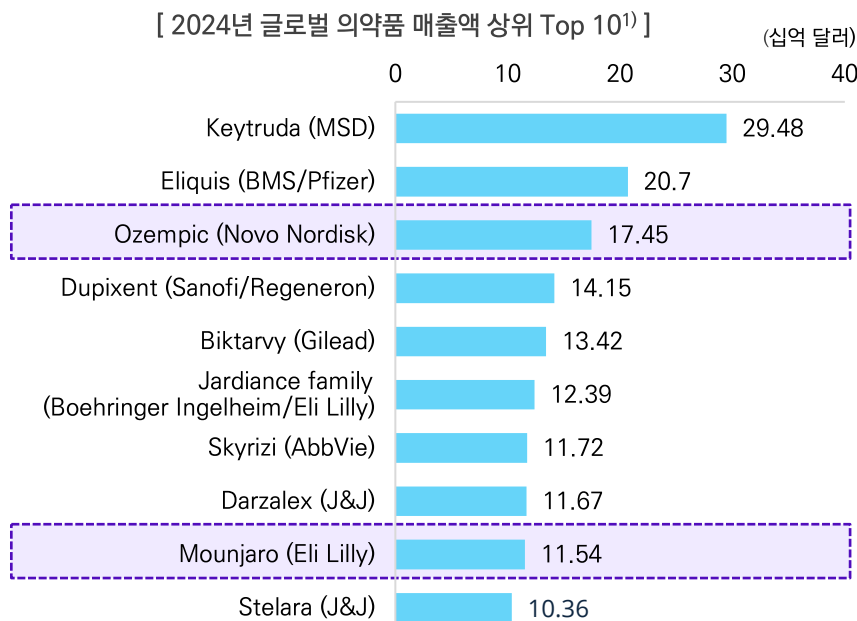
- 초기 혈액암 후보물질 BMS-986497(개발 코드명 : ORM-6151) 등 신규 파이프라인 공개 (2026 JPMHC)
 - BMS-986497은 한국 오름테라퓨틱(Orum Therapeutics)이 개발해 BMS에 기술 이전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및 골수이형성증후군(MDS) 치료제
 - BMS가 보유한 CELMoD 플랫폼(차세대 표적 단백질 분해 약물 개발 플랫폼)과 기전적으로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미충족 수요 분야를 타깃할 수 있는 외부 기술을 선별해 편입한 사례
- 견조한 재무 기반과 다양한 파이프라인 자산 확보로 장기적 성장 구축
 - 신경과학, 심혈관계, 면역학, 종양학, 다발골수종 등 자체 파이프라인 강화 뿐 아니라 선별적 파트너십 및 기술 도입 전략을 지속하여 블록버스터 의약품 특허 만료 대응

Source: BMS 홈페이지,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② 비만 및 대사질환 치료제 강세 지속 (1/3)

2024년 글로벌 의약품 매출액 상위 10위권 내에 GLP-1 기반의 대사질환 치료제 2종이 포함되었으며, 오젠포픽(Ozempic)은 전년대비 약 26%, 마운자로(Mounjaro)는 124% 성장. 두 약물의 매출액 합은 약 290억 달러로 매출액 1위인 키트루다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는 2030년 매출 상위권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GLP-1 기반 대사질환 치료제,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 등극



Source: Statista, Evaluat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팀

Note 1): Keytruda(키트루다), Eliquis(엘리퀴스), Ozempic(오젠포픽), Dupixent(듀피젠티), Biktarvy(빅타비), Jardiance family(자디앙 패밀리), Skyrizi(스카이라치), Darzalex(다잘렉스), Mounjaro(마운자로), Stelara(스텔라라), Zepbound(젠포운드), Wegovy(웨고비), Humira(휴미라), Phesco(페스코), Ocrevus(오크레부스), Tagrisso(타그리스소), Entresto(엔트레스토), Cominarty(코미나티)

노보 노디스크 & 일라이 릴리 매출 상위권 전망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 매출액 상위 Top 10 추이¹⁾]

순위	기업명	2030년 매출 (십억 달러)	2024년 매출 (십억 달러)	순위 변동	주요 제품
1	일라이 릴리 (Eli Lilly)	112.6	45.0	▲8	Mounjaro, Zepbound
2	노보 노디스크 (Novo Nordisk)	83.9	42.1	▲9	Ozempic, Wegovy
3	애브비 (Abbvie)	75.3	56.3	▲2	Skyrizi, Humira
4	존슨앤드존슨 (Johnson & Johnson)	67.8	88.8	▼3	Darzalex, Stelara
5	로슈 (Roche)	66.3	65.3	▼3	Phesgo, Ocrevus
6	사노피 (Sanofi)	64.8	44.4	▲4	Dupixent
7	아스트라제네카 (AstraZeneca)	64.4	54.1	▼1	Tagrisso
8	머크 (MSD)	60.0	64.2	▼5	Keytruda
9	노바티스 (Novartis)	58.1	50.3	▼2	Entresto
10	화이자 (Pfizer)	50.1	63.6	▼6	Cominarty, Eliquis

② 비만 및 대사질환 치료제 강세 지속 (2/3)

최근 노보 노디스크는 위고비 필(Wegovy Pill)의 미국 FDA 승인으로 경구용 비만치료제 시장에 먼저 진출하였고, 일라이 릴리 역시 경구용 GLP-1 기반 비만치료제 신약 허가 신청을 완료. 기존 주사제 중심의 시장 구조에서 경구제로 전환되며 2026년 경쟁 구도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

노보 노디스크, 먹는 위고비(Wegovy) FDA 승인

- FDA로부터 GLP-1 기반의 경구용 비만치료제 '위고비 필(Wegovy Pill)' 시판 허가 승인 ('25.12)
 - 위고비 필은 기존 주사제 위고비(Wegovy)의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Semaglutide)를 기반으로 하며 1일 1회 복용하는 알약 형태로 FDA가 체중 감량을 위해 승인한 최초의 경구용 GLP-1
 - 주사제 중심이던 GLP-1 시장에 경구용 제품 등장으로 콜드체인 필요성 및 냉장 보관과 같은 제약을 없애 접근성을 확대하면서 경구용 GLP-1 개발 경쟁 가속화 주목
 - 특히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경쟁사인 일라이 릴리보다 앞서 경구제 비만약을 상용화하여 경쟁 구도 변화 예상
 - 위고비 후속 제품으로 GLP-1 및 아밀린(Amylin) 유사체 복합제인 카그리세마(CagriSema)도 허가신청서(NDA) 신청 완료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일라이 릴리, 경구용 GLP-1 비만치료제 신약 허가 신청

- FDA에 경구용 GLP-1 수용체 작용제 '오포글리프론(Orforglipron)' 신약 허가신청(NDA) 제출 완료 ('25.12)
 - 임상 시험에서 주사제 수준의 유의미한 체중 감량 효과를 입증하며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오포글리프론은 국가우선바우처(CNPV)¹⁾ 프로그램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일반적인 FDA의 의약품 승인심사기간 대비 신속하게 허가될 가능성 존재
-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기업과 경구용 비만치료제 개발 협력 확대
 - 일라이 릴리는 님버스 테라퓨틱스(Nimbus Therapeutics)와 비만 및 기타 대사질환에 대한 새로운 경구용 치료제 개발을 위해 최대 13억 달러 규모의 연구 협력 및 글로벌 독점 라이선스 계약 체결 발표 ('26.01)
 - 비만 분야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 단계 저분자 발굴 프로그램에 님버스 테라퓨틱스의 계산화학(Computational Chemistry) 및 구조 기반 신약 설계(Structure-based Drug Design) 접근 방식을 적용할 계획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미국 FDA가 국가 보건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신약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해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Commissioner's National Priority Voucher)

② 비만 및 대사질환 치료제 강세 지속 (3/3)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 중심의 비만치료제 분야에서 후발주자 개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화이자, 암젠, 아스트라제네카, 로슈 등 글로벌 빅파마는 투여 주기 또는 대사질환 관련 동반 질환 개선, 병용 요법 개발 등 차별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어 비만 및 대사질환 시장 확대가 본격화 될 전망

장기 지속형·편의성 중심의 치료제 전략 발표 (2026 JPMHC)

- 화이자 2025년 인수한 멧세라(Metsera)의 GLP-1 파이프라인 기반으로 임상 시험 가속화
 - 자체 경구용 비만치료제 다누글리프론(Danuglipron) 개발 중단 이후 멧세라의 'MET097'으로 비만치료제 시장 재진입
 - 'MET097'은 초장기 지속형 GLP-1 기반 비만치료제이며 월 1회 투여 주사제로 임상 3상 진입. 이 외 아밀린, GLP-1, GIPR¹⁾ 타깃으로 경구제도 병행 개발 중
- 암젠은 비만·당뇨병 치료제 후보물질 '마리타이드(MariTide)' 중심의 비만치료제 시장 집중
 - 마리타이드는 월 1회 또는 그 이상의 투여 간격(분기별 투약 등)으로 장기적 유지 효과에 집중하여 현재 글로벌 임상 3상 6건 진행 중이며, 제2형 당뇨병 임상3상 프로그램도 준비 중
 - 비만과 제2형 당뇨병을 비롯해 수면무호흡증, 심혈관질환 등 비만 관련 질환을 타깃하는 장기 지속형 후보물질 타깃 전략 제시

Source: 각 사 홈페이지,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포도당 의존성 인슐린 분비 폴리펩티드 수용체(Gastric Inhibitory Polypeptide Receptor)

비만치료제 세분화 및 병용 요법 전략 발표 (2026 JPMHC)

- 아스트라제네카는 비만 및 대사질환 관련 동반 질환 개선과 병용 요법으로 파이프라인 다각화
 - 단순 체중 감량 수치뿐 아니라 심혈관, 신장 질환 등 동반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구 GLP-1을 포함한 아밀린 수용체 작용제(AZD6234), GLP-1/글루카곤 이중 작용제(AZD9550) 등 다양한 기전 개발 병행
 - 경구용 GLP-1 기반 후보물질(AZD5004)와 기존 당뇨병 치료제 파시가(Farxiga)의 병용 요법을 통해 의료적 편익 극대화 추구
- 로슈는 작용기전 후보물질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비만 치료에서 대사질환 플랫폼으로 확장
 - GLP-1 계열 중심이 아닌 아밀린 유사체(Petrelintide, 페트렐린타이드), GLP-1/GIP 이중 작용제(CT-388)와 같은 다양한 작용기전 후보물질 개발 중
 - 서로 다른 작용기전의 병용 요법을 통해 환자 맞춤형 치료법 연구 개발 중이며 2026년 총 5건의 임상 2상 결과 발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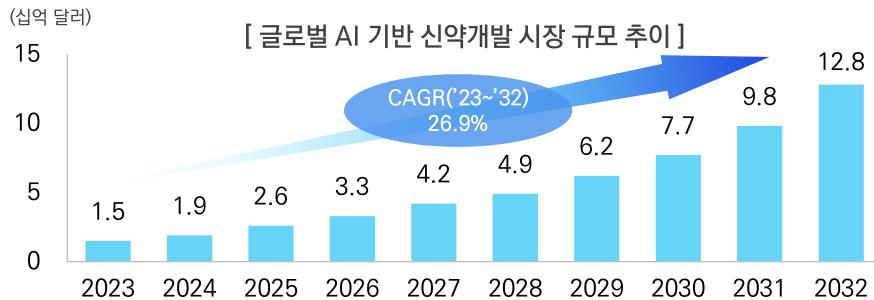
Source: 각 사 홈페이지,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③ 인공지능(AI) 실질적 도입으로 신약개발 가속화 (1/3)

인공지능(AI)은 신약개발 단계를 넘어 진단·치료, 병원 운영 효율화까지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분야 내 핵심 인프라로 부상. 이에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은 AI 플랫폼 구축을 통한 신약개발 뿐 아니라 의료 AI 파트너십 기회를 모색하여 향후 생태계 전반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략 수립 필요

AI 신약개발, 제약·바이오 산업 내 필수 인프라로 성장

- 글로벌 AI 신약개발(AI in Drug Discovery) 시장은 2023년 이후 연평균 약 27%의 성장률을 보이며 2032년 128억 달러 규모 예상
- AI 도입은 연구개발(R&D) 가속화부터 임상시험 최적화 등 신약개발 전반의 생산성 및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역량으로 부상
- 제약·바이오 기업은 AI-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을 제공하는 기술 인프라 및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을 넘어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며 관련 기술투자 및 거래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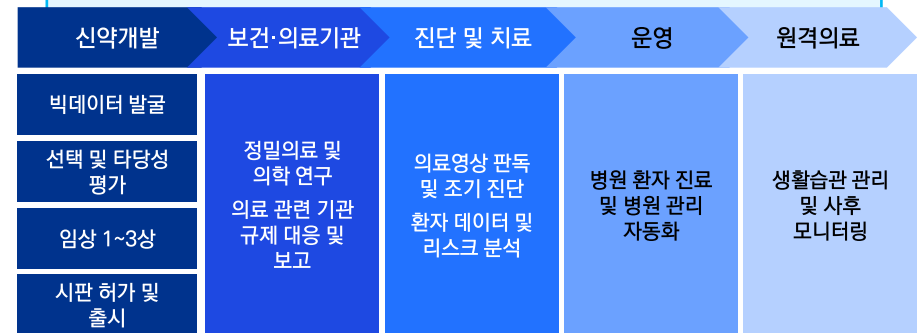


Source: Statista, 삼정KPMG 경제연구원

생명과학 & 헬스케어 분야 내 핵심 기술로 자리잡은 AI

“생태계 전반의 AI 실질적 성과 중요”

- ✓ AI는 후보물질 발굴 및 최적화, 임상 단계 등 신약개발을 넘어 의학연구, 진단 및 치료, 병원 운영에 이르기까지 의료 서비스 전반에 걸쳐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
- ✓ 생명과학 & 헬스케어 비즈니스 생태계는 AI 도입을 넘어 치료 혁신 가속화, 데이터 통찰력과 임상 진료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등 전사적 가치 창출을 위해 AI 기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략 수립 필요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③ 인공지능(AI) 실질적 도입으로 신약개발 가속화 (2/3)

엔비디아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 자사의 AI 기술을 생명과학 분야에 도입하고 자체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파트너십 강조. 이번에도 일라이 릴리의 의약품 발굴·개발 전문성과 엔비디아의 AI 인프라 기술을 결합하는 공동 연구소 설립 계획과 써모피셔 사이언티픽(Thermo Fisher Scientific)과의 파트너십 발표

일라이 릴리 & 엔비디아 에이전틱(Agentic) AI¹⁾ 협업 확대

- 일라이 릴리와 엔비디아는 5년간 최대 10억 달러를 투자하는 AI 공동 연구소(CO-Innovation AI Lab) 설립 계획 발표 (2026 JPMHC)
 - 샌프란시스코에 설립되는 AI 공동 연구소는 엔비디아의 신약개발 특화 생성형 AI 플랫폼 ‘바이오네모(BioNeMo)’,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 ‘베라 루빈(Vera Rubin)’ 등을 도입
 - 임상 설계부터 데이터 학습, 실험 자동화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에이전틱 AI로 신약개발 혁신 추구
- AI를 활용한 신약개발의 전 생애주기를 통합 관리하는 인프라 ‘AI 팩토리(AI Factory)’ 구축 파트너십 체결 (‘25.10)
 - 일라이 릴리는 신약 후보물질 탐색부터 제조와 의료영상 분석에 이르기까지 의약품 개발 전 과정에 AI를 적용해 데이터 중심 제약사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엔비디아는 AI 인프라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정밀의학 실현을 강조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며, 필요한 도구를 활용해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학습하는 AI

엔비디아, 신약개발 플랫폼 등 의료 AI 전략적 강화

- 엔비디아와 써모피셔 사이언티픽의 자율 실험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 발표 (2026 JPMHC)
 - 연구 장비 및 서비스 기업인 써모피셔 사이언티픽은 엔비디아의 AI 슈퍼컴퓨터 ‘DGX Spark’를 활용해 자율형 실험실 인프라를 구축하여 신약개발 및 과학 연구 프로젝트 효율 강화 목적
 - 엔비디아는 자사의 AI 기술을 헬스케어·생명과학 분야에 도입해 자체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글로벌 제약사와의 파트너십 확대
- * (2025 JPMHC 엔비디아가 발표한 파트너십 참고)
 - 임상 연구 서비스 기업 ‘아이큐비아(IQVIA)’와 에이전트 AI 솔루션 개발
 - 종합병원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과 차세대 AI 기반 디지털 병리학 플랫폼 개발
 - 생명공학 기업 일루미나(Illumina)와 유전체 분석 플랫폼 고도화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③ 인공지능(AI) 실질적 도입으로 신약개발 가속화 (3/3)

글로벌 제약·바이오 분야 내 AI의 실질적 도입으로 경쟁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AI 및 데이터 통합 기반의 정밀의료 플랫폼 기업 템퍼스 AI(Tempus AI)가 주목 받음. 또한 아스트라제네카는 신약개발 전반에 AI 기술을 통합·확대하는 내재화 전략으로 AI 바이오 기업 모델라 AI(Modella AI)의 인수를 발표

템퍼스, AI·데이터 통합 기반의 정밀의료 플랫폼 수익화 실현

- AI 기반 정밀의료 기업 템퍼스 AI(Tempus AI)는 대규모 의료 데이터와 이를 활용한 진단·연구용 AI 활용 사례 발표 (2026 JPMHC)
 - 종양학 중심으로 임상 검사를 수행하고 보험 청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진단 사업과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연구용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사업을 통해 수익화 구조 실현
 - 현재 4,500만 명 이상의 환자 데이터를 보유하여 멀티모달 데이터세트(Multimodal Dataset)를 구축하였고, 진단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치료, 신약개발까지 활용하는 구조 공개
- 제약·바이오 기업 외에도 의료기관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플랫폼 확장¹⁾
 - 노스웨스턴 메디슨(Northwestern Medicine)과 유전체 검사 확대 협력, 뉴욕대학교 랭곤 헬스(NYU Langone Health)와 정밀 종양학 연구를 위한 다년간의 전략적 연구 협력 발표 (2026 JPMHC)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Tempus AI는 2025년 유전자 암 검사 기업 엠브리 제네틱스(Ambry Genetics)와 디지털 병리학 전문 AI 기업 페이지(Paige) 인수 외에도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와 멀티모달 AI 종양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파트너십 확장 발표

아스트라제네카, AI 기반 항암 신약개발 전주기적 역량 강화

- 항암(Oncology) 신약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 보스턴 기반 바이오 AI 기업 '모델라 AI(Modella AI)' 인수 발표 (2026 JPMHC)
 - 모델라 AI는 AI를 활용해 병리 이미지, 임상 데이터, 유전체·분자 데이터 등을 통합 분석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
 - 아스트라제네카는 모델라 AI의 멀티모달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공받는 협력 계약 체결('25.07) 이후 전략적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향후 AI 기술을 완전히 내재화하기 위해 인수 결정
 - 멀티모달 AI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에 더해 AI 에이전트(AI agents)¹⁾를 활용할 예정
 - 병리학적 데이터 분석 고도화, 임상 개발과 바이오마커(Biomarker) 탐색 과정의 효율성 강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자동화 및 효율화, 임상시험 디자인 및 실행 최적화 등 신약개발 전반에 통합할 계획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AI를 사용해 사용자를 대신하여 목표를 추구하고 태스크를 완료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④ K-바이오, 생물보안법 효과 기대 및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1/3)

최근 미국의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시행이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은 중국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미국 내 생산 기지(CDMO)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의 주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

생물보안법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¹⁾ 최종 서명('25.12)

생물보안법 (BIOSECURE Act)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우려 바이오 기업 (Biotechnology Companies of Concern)'의 장비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이 미국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거나 보조금을 받는 것을 금지

- 국방수권법안 8장((title VIII) E절(subtitle E) 851조(SEC. 851))에 포함돼 있으며, 제851조는 특정 바이오기술 제공자와의 계약 금지로 국방수권법 발효 후 1년 이내에 관리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이 우려 바이오 기업 명단을 공표해야 함
- [주요 타깃 기업] 우시 애플렉(WuXi AppTec), 우시바이오로직스(WuXi Biologics), BGI, MGI Tech 등
- [제한 범위] 우려 바이오 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바이오 장비 및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획득할 수 없으며, 신규 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연장·갱신 제한(해당 기업에게 대출 및 보조금 사용 제한)
- [유예 기간] 기타 우려 기업과 기존 계약 또는 합의에 대해서는 5년간 적용 유예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미국 국방부의 예산 및 정책을 결정하는 연례 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美 생물보안법 최종 승인에 따른 중장기 수혜 기대

• GSK 생산시설 인수 계약 체결 ('25.12)

SAMSUNG BIOLOGICS

- 미국 메릴랜드주 락빌(Rockville)에 위치한 휴먼지놈사이언스(HGS)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총 6만L 규모의 원료의약품(DS, Drug Substance) 공장) 인수 계약 체결로 미국 내 생산거점 확보
- 인수 금액은 2억 8,000만 달러, 인수 절차는 2026년 1분기 내 완료 예정

• 일라이 릴리 생산시설 인수 완료 ('25.12)

CELLTRION

-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Branzburg) 소재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소유권 이전 완료
- 일라이 릴리로부터 위탁 받은 총 4억 7,300만 달러 규모의 의약품 위탁생산 본격 돌입

•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에 바이오 캠퍼스 운영

LOTTE BIOLOGICS

- BMS의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인수 완료('22.12) 후 지속적인 설비 증설 투자로 현재 4만L 규모의 항체, ADC 등 임상개발부터 상업생산까지 전 공정을 다루는 역량 보유

Source: 각 사 홈페이지,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④ K-바이오, 생물보안법 효과 기대 및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2/3)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년 연속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메인 트랙에 초청을 받아 '순수(Pure-play) CDMO' 정체성 강화와 미국 공장 및 제3바이오캠퍼스 중심의 생산능력·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 발표. 셀트리온 역시 미국 공장 기반의 CDMO 사업 확대 발표와 함께 바이오시밀러 외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로드맵도 공개하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삼성바이오로직스, CDMO 역량 강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대

- 10년 연속 메인 트랙(Main Track)에 초청받고 있으며, 2025년 주요 성과와 생산능력·포트폴리오·글로벌 거점의 3대축 확장 전략 가속화 발표 (2026 JPMHC)
 - 2025년 삼성에피소홀딩스와의 인적분할을 통한 '순수(Pure-play) CDMO'로서 사업적 리스크 해소 및 CDMO 정체성 강화
 - 항체접합치료제(AXC), 항체백신, 세포·유전자치료제(CGT) 등 멀티모달리티(Modality)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송도 제3바이오캠퍼스 부지('25년 확보)와 미국 락빌 공장 등을 기반으로 CDMO 경쟁력 강화
- 생산능력 확장 및 CRDMO 엔드투엔드(End-to-End) 서비스 제공 계획
 - 6공장 건설 검토와 함께 자사 생산 체계(Manufacturing Framework) '엑셀런스(ExellenS™)' 기반의 생산능력 확장을 지속하고, CRO·CDO·CMO를 아우르는 CRDMO 역량을 강화해 의약품 개발 전 과정의 역량 제고

Source: 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셀트리온, 신약개발 가속화로 글로벌 입지 강화

- 2025년에 이어 올해도 메인 트랙 발표 기업으로 선정되어 신약개발 성과와 미래 CMO 사업 전략 발표 (2026 JPMHC)
 -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통해 확보한 현금 흐름과 항체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 ADC, 다중항체, 태아 FC 수용체(FcRn) 억제제, 비만치료제 등 16개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로드맵 공개
 - 11개의 바이오시밀러 제품 포트폴리오를 2038년까지 41개로 확대할 계획
- 미국 공장 중심으로 글로벌 CDMO 사업 확대
 - 최근 인수를 마무리한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엔드투엔드(End-to-End) 미국 공급망 구축 전략과 이를 통한 CMO 사업 확대 방안 발표
 - 미국 생산시설을 활용해 관세 리스크를 해소하고 증가하는 제품 포트폴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 안정성과 시장 대응력 강화

Source: 셀트리온,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④ K-바이오, 생물보안법 효과 기대 및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3/3)

신약개발 기업 알테오젠과 디앤디파마텍을 비롯한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기업 휴젤은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아시아·태평양 트랙(APAC)에 초청돼 자사의 플랫폼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전략 발표

알테오젠, 디앤디파마텍, 휴젤: 파트너십, 기술이전, 임상 등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전략 발표 (2026 JPMHC)

- 알테오젠은 ‘하이브로자임(Hybrozyme)’ 플랫폼 기반의 파이프라인 확대 및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 알테오젠이 개발한 ‘하이브로자임(Hybrozyme™)’은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로 약물전달방식을 변화시키는 플랫폼 기술
 -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업화가 예상되고, 향후 글로벌 신규 라이선스 계약 및 모달리티 확장을 지속할 계획
- 자체 품목 강화부터 생산, 공급망 역량까지 내재화 전략 추진
 - 현재 3개인 상업화 품목을 2030년까지 9개 이상으로 확대
 - GMP¹⁾ 수준의 생산시설과 글로벌 공급망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제품 상업화부터 공급 안정성 강화

- 디앤디파마텍은 MASH(대사 관련 지방간염) 치료제 중심의 간질환 및 CNS(중추신경계) 질환 파이프라인 성과 기반의 글로벌 임상 및 파트너십 확대
 - DD01은 GLP-1 및 글루카곤 수용체 이중작용제로, 미국 임상 2상 진행 중
 - GLP-1 플랫폼을 파킨슨병과 다발성경화증 등 신경계 질환 치료로 확대하는 임상 진행 중

- 휴젤은 2026년부터 미국 시장 직판과 파트너십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판매 모델 도입 등 글로벌 시장 확대 가속화
 - 미국 현지 유통 파트너사 베네브(BENEV)와 더불어 직접 판매(직판) 영업 조직을 신설하여 미국 보툴리눔 독소 제제 시장 점유율 확대
 - 톡신, 히알루론산(HA) 필러 등 기존 주력 제품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스킨부스터 기술 도입과 제품 공동 판매(Co-promotion) 사업 전략 추진

Source: 알테오젠 홈페이지,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Good Manufacturing Practice(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Source: 각 사 홈페이지,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26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간 중 발표된 주요 투자

2026년 1월 16일 기준, 본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최대 규모의 투자는 애브비가 중국 제약사 레메젠 (RemeGen)의 기술을 최대 56억 달러에 거래한 것으로 확인. 이 외 노바티스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투자와 아스트라제네카의 모델라 AI 기업 인수 등이 있었으며 컨퍼런스 이후에도 기술거래 포함 파트너십, 인수합병 등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구분	인수(투자) 기업	피인수(피투자) 기업	분야	거래규모	비고
인수합병 (M&A)	일라이 릴리 ¹⁾ (Eli Lilly)	벤틱스 바이오사이언스 (Ventyx Biosciences)	염증성 질환	약 12억 달러	- 염증성 질환 타겟 경구용 치료제 파이프라인 강화 - 경구 NLRP3 저해제 파이프라인 확보하여 심혈관 및 대사질환을 포함해 신경염증성/신경퇴행성 질환, 자가면역/염증성 질환 전반에서 경구용 저분자 치료제 확대
	아스트라제네카 (AstraZeneca)	모델라 AI (Modella AI)	인공지능(AI)	미공개	- 모델라 AI의 멀티모달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AI 에이전트(AI agents) 기술 활용 - 병리학적 데이터 분석 고도화, 임상 개발과 바이오마커 (Biomarker) 탐색 과정의 효율성 강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자동화 및 효율화, 임상시험 디자인 및 실행
라이선스·파트너십	애브비 (AbbVie)	레메젠 (RemeGen)	종양학	최대 56억 달러 (선금금 6억 5,000만 달러 포함)	- RemeGen의 PD-1/VEGF 이중특이항체 후보물질(개발 코드명 : RC148) 확보하고, 개발·제조·상업화를 위한 중화권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외 지역 독점 라이선스 계약 체결 - RC148은 비소세포폐암(NSCLC), 대장암 등 여러 진행성 고형암에서 단독요법 및 병용요법으로 개발 중이며 애브비의 ADC 파이프라인 중 텔리소투주맙 아디주테칸(Telisotuzumab adizutecan)과 병용 방안 모색
	노바티스 (Novartis)	사이뉴로 파마슈티컬스 (SciNeuro Pharmaceuticals)	알츠하이머	최대 15억 달러 (선금금 1억 6,500만 달러 포함)	사이뉴로 파마슈티컬스가 자체 개발한 뇌혈관장벽(BBB) 셔틀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아밀로이드 베타 표적 항체 치료제 프로그램 개발 협력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1): 일라이 릴리는 제44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직전 인수를 발표하고 행사에서 관련 전략 강조

Business Contacts

제약·바이오산업 산업

황재남 부대표, Industry Leader
jaenamhwang@kr.kpmg.com

조승희 전무
seunghheecho@kr.kpmg.com

지동현 전무
dchi@kr.kpmg.com

이주영 전무
jooyounglee@kr.kpmg.com

엄준식 상무
junsikuhm@kr.kpmg.com

박상훈 상무
sanghoonpark@kr.kpmg.com

나재광 상무
jra@kr.kpmg.com

Consulting Services

박경수 상무
kyungsoopark@kr.kpmg.com

정대권 상무
daekwonchung@kr.kpmg.com

최종원 상무
jchoi16@kr.kpmg.com

Deal Advisory

임창희 상무
changheelim@kr.kpmg.com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Authors

삼성KPMG 경제연구원

도규상
원장
kdoh@kr.kpmg.com

정미주
책임연구원
mijujung@kr.kpmg.com

김나래
수석연구원
nkim15@kr.kpmg.com

엄이슬
책임연구원
yeom@kr.kpmg.com

home.kpmg/kr



본 보고서는 삼성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